

### 3. 형제와 나

兄弟는 父母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兄弟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飮食(음식)과 衣服(의복)이 있든 없든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한다. 가령 兄은 굶주리는데 동생은 배부르고, 동생은 옷이 없어 추워서 떠는데 兄은 따뜻한 옷을 입는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몸 가운데 어떤 팔다리는 병들고 어떤 팔다리는 건강한 것과 같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兄弟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父母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父母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父母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兄弟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마땅히 정성스럽게 충고하고 점차 올바른 이치를 가지고 가르쳐서 스스로 감동하여 깨닫기를 기다려야지, 급하게 화난 얼굴과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여 兄弟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잃게 해서 안 된다. (『격몽요결』 「거가장」)

\*그 부모의 자식 : 형제를 가리킴

○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兄弟끼리 다투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릴 때는 대개 장난감이나 먹는 것을 두고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또 다투면 父母님이 혼내시니까 父母의 눈치를 보면서 싸움을 끝내기도 하지요.

문제는 혼인을 한 뒤 어른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父母님이 늙거나 돌아가시면 父母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싸우는 兄弟들이 꽤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왕의 자리를 두고 兄弟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은 흔했고, 요즘도 父母님이 물려준 큰 회사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兄弟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兄弟끼리 왜 이렇게 다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놓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재산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할 수 있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父母가 평소에 특별한 자식만 사랑했거나 차별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兄弟들의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이 집안의 일에 협조하지 않아 싸우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兄弟간의 싸움은 옛날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이야기인 ‘흥부놀부’나 ‘의좋은 兄弟’ 같은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兄弟끼리 잘 지내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兄弟들끼리 다투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해요. 게다가 남들의 시선도 두려워서 사회생활을 떳떳하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兄弟끼리 잘 지내는 것도 孝道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어요. 모두 父母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父母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兄弟끼리 다투지 마세요.

##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의 설명에 맞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오누이 형제 자매 남매 형제자매

가. 오빠와 누이동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나.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가리키는 말 :

다. 한 부모가 낳은 남녀 자식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서 몇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 수를 빈칸에 써 넣으시오.

형제자매	형 또는 오빠	남동생	누나 또는 언니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나				

3. 내가 형제자매에게 잘 해준 경험이 있으면 써 보세요.

가. 대상(누구) :

나. 언제 :

다. 무엇을 :

4. 내가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과 잘 지낼 수 있는 일을 찾아 적어 보세요.

대상	잘 지낼 수 있는 일
형	
누나	
동생	
오빠	

##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나	몸	마음	마실	먹을	옷	옷
한자	我	身	心	飮	食	衣	服
음	아	신	심	음	식	의	복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 가. 心身( ): 마음과 몸  
 나. 飮食( ): 마실 것과 먹을 것  
 다. 衣服( ): 옷의 다른 말

3. 서로 관계되는 낱말과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 (1) 身 ●                      ● 바지  
 (2) 飮 ●                      ● 음료수  
 (3) 衣 ●                      ● 팔다리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 가. 兄友弟恭(□□□공)하라 :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라.  
 나. 兄弟(□□)는 同受父母遺體(동수□□유체)하니 與我如一身(여□여□□)  
 이라 : 兄弟는 父母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 三兄弟

옛날에 부모가 일찍 죽고 三兄弟만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三兄弟에게는 제각기 재주가 있었어요. 큰兄은 눈이 좋아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둘째는 힘이 세서 어떤 무거운 짐도 옮길 수 있었죠. 셋째는 아무리 때려도 다 치거나 아프지 않는 몸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큰兄이 저 멀리 마을을 보니 원님이 있는 관아(관청)의 창고에 쌀이 가득했어요. 三兄弟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 그걸 훔치기로 했지요.

밤이 되자 三兄弟는 몰래 관청의 창고 앞에 갔어요. 둘째가 창고 문을 부수고 쌀을 짚어지고 돌아와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었어요.

한편 쌀을 잃어버린 원님은 포졸들을 시켜 쌀 도둑을 찾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훔친 일이 들통 나서 三兄弟가 붙잡혀 원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때는 도둑질을 하면 매(곤장)를 백 대나 맞아야 했어요.

셋째는 그 매를 자기가 맞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원님에게 쌀을 자기가 훔쳤다고 거짓으로 자백했어요. 그리고 두兄을 보내 달라고 했지요. 원님은 비록 도둑이지만 兄弟 사이 友愛(兄弟 사이의 사랑)가 깊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라고 했어요. 셋째는 불기를 맞았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았고 상처도 나지 않았어요. 때린 사람만 힘들고 피곤했지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관청의 쌀을 훔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도 옛날에 못된 원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 쌀을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三兄弟는 배가 고파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서로 위해주고 지켜주는 사랑이 컸네요. 형제의 우애만큼은 배웠으면 좋겠어요.